

##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변동과 노동이동에 따른 지역고용정책 고찰 : 대전·충청권을 중심으로

김형근\*대전지방고용노동청

임영언\*\*한남대학교

김일태\*\*\*전남대학교

---

### 논문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일자리와 노동력 변동이 연계된 패널 형태의 자료를 활용하여 전국 및 지역 일자리 창출과 소멸의 동태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역고용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있다. 분석결과, 2018년 12월 기준 전국평균 일자리 창출 수는 6,315개, 소멸 7,053개, 채용 29,743개, 이직 30,587개로 일자리 순증가는 844개로 감소하였다. 전국 광역시도 중 지역 일자리 창출이 높은 지역은 경북 9,961개, 경남 9,561개, 전남 9,430개 순으로 일자리 소멸이 낮은 지역은 제주도 2,323개, 전북 2,988개, 충북 4,237개 순이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역 일자리 변동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 변수 간 상관성 분석에서 순일자리 증가와 노동력 변동과는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채용이 많을수록 순일자리는 증가하였고, 초과노동이동은 노동력 변동이 많을수록 초과이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역 일자리 초과노동이동량과 순증가의 추이는 초과노동이동량이 많은 대전 서구, 청주시 흥덕구, 천안시 서북구, 아산시 등 지역에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도한 초과노동이동량으로 일자리 순증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초과노동이동량에 따른 산업 안전, 근로자의 휴식,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충북 증평군, 충남 청양군, 계룡시는 노동력 변동이 적고 채용과 이직 또한 적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 일자리 발굴 및 창출 정책의 수립이 절실함을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 일자리 변동, 순일자리, 초과노동이동량, 노동이동, 일자리 창출

---

\*제1저자 \*\*교신저자1 \*\*\*교신저자2

## I.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고용정보원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전국 및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시·군 일자리 창출과 소멸의 특성을 분석하고 일자리 변동과 증가요인을 도출하여 지역고용정책의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있다. 2018년 12월 기준 전국일자리 변동지표를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 수는 6,315개, 소멸은 7,053개로 일자리의 순증가는 844개로 감소하였다.

일자리 수 감소의 원인은 최근 글로벌 무역 둔화 등에 따른 수출 감소, 제조업 투자·고용 위축 등으로 생각된다. 특히 15~64세 인구 감소 중 40대 인구가 148,000명이 감소하여 실질적인 40대 취업자 수가 감소하였고, 이와 더불어 30대 또한 인구와 취업자가 매년 감소하여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고령층 인구증가는 더욱 확대되고 생산가능 인구는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상반기 지역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은 공급 측면에서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노동시장 참여자는 여성 고령자 중심으로 수요 측면에서는 경기요인과 제조업 둔화가 취업자 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시간 근로자증가, 일·생활 균형문화의 확산 등 제도적 정책적 요인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용노동부는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지방고용노동청, 지자체가 함께 업종별 지역별 특화된 ‘일자리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여 촘촘하고 세밀한 지역 고용 문제해결을 위해 업종 단위별 일자리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논문은 최근 전국 및 지역일자리 변동의 동학적 특성을 살펴보고, 일자리 변동과 노동력 변동에 대한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전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은 일자리 변동 및 이론적 고찰로 개념 정의와 분석자료의 구조와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Ⅲ장은 일자리 변동 및 실태를 통해 전국일자리 창출·소멸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역의 대전 충청남북,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일자리 창출·소멸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Ⅳ장은 지역 일자리 상관성 분석을 통해 순일자리 증가율, 재배치율, 노동력 변동, 초과노동이동량에 대한 관련성을 추정하고, 초과노동이동과 순증

가 비교, 노동력 변동과 순증가 비교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 V장은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통해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 II.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고찰

### 1. 선행연구와 일자리 변동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자리의 개념은 명확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 일자리(Job)의 정의는 사업체나 기업에서 근로자에 의해 채용된 고용 지위로 정의하였다(Davis and Haltiwanger et al. 1996). 일자리 창출과 소멸에 관한 전국 차원의 연구는 김대일(2000), 김혜원(2004), 윤윤규 외(2009), 문남철(2009) 등의 연구로 주요 내용은 업종별 비교 연구, 국가 간 비교연구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교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일자리창출과 소멸에 관한 외국의 선행연구사례를 살펴보면, 블랜차드나 카츠(Blanchard and Katz 1992)의 경우 미국의 주별 실업률 추세를 바탕으로 한국의 경우 지역별 일자리창출 능력의 차이뿐만 아니라 실업률에서도 구조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규명한 바 있다. 데이비스나 할티웡어(Davis and Haltiwanger 1996)는 일자리 변동(Job Flows)이 사업체 단위에서의 고용변동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일자리창출과 소멸이 기업의 생성, 소멸, 확장, 축소라는 동태적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노동이동을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지역보다는 한국에서의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일자리변동과 노동이동을 분석한 연구들도 있다. 이러한 일정 지역의 일자리창출과 소멸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인수(2006)는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하는 제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의 생성과 확장, 소멸과정의 동태적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주요 선진국과 비교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또한, 권우현 외(2013)는 고용보험 DB를 활용하여 대구 경북지역의 일자리변동을

## 8 한국과 국제사회 제4권 5호 (2020)

분석하였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구 경북지역의 일자리창출률은 16.5%로 일자리 소멸률은 12.8%로 조사되었다. 이와 비슷한 차원에서 김준영(2013)은 고용보험 DB를 활용하여 부산지역 16개 구군 수준의 지역노동시장별 일자리변동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부산 지역은 높은 일자리변동과 낮은 일자리 순창출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며 서울이나 전국평균과 비교하여 일자리창출률의 지속성은 낮고 일자리 소멸률의 지속성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선행연구는 부천과 부산지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DB를 활용한 일자리변동 요인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윤윤규(2009)와 전병유·김혜원(2003), 정인수(2006) 등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여 일자리창출과 소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정인수(2006)는 고용보험 DB를 활용하여 부천시 제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멸을 분석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고용보험 DB를 활용하여 대전지역의 일자리 변동을 측정하고 노동이동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시도했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고용보험 DB 활용은 일자리창출과 소멸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연구 방법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대전지역 단위의 차별화된 노동시장의 존재라는 가정하에 지역별 일자리창출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지역 단위의 상이한 일자리창출과 소멸구조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차이를 초래한 요인들이 일자리창출 능력의 차이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들이 존재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 2. 일자리 변동의 정의

일반적으로 노동의 이동에 따라 일자리 변동이 발생한다. 따라서 노동의 이동은 취업자가 일자리를 잃거나 실업자가 일자리를 획득하는 것처럼 고용상의 변동으로 기존 일자리에서 새로운 일자리로 옮기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취

업자가 취업을 통해 일자리를 이동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이 종사 하던 일자리가 사라져서 경영상 해고되는 경우이다. 둘째,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옮기는 경우이다. 셋째, 기존 일자리보다 더 나은 조건의 일자리를 찾아서 기존 취업자가 이직함으로 빈 일자리로 옮기는 경우이다. 넷째, 개인적인 사정 으로 일자리를 포기하는 경우 등이다.

일자리 변동에서 일자리 창출량과 소멸량의 합계인 일자리 재배치량은 노동 자의 일자리 이동의 최소값이다. 일자리 재배치량은 순일자리 변동량을 뺀 초 과일자리 변동량으로 일자리 변동으로 인한 취업상태와 실업 상태 사이에서 발 생하는 노동이동이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sup>1)</sup> 먼저 일자리 창출량은 새로 시작하거나 고용 규모가 늘어난 사업체에서 t-1 시점과 t시점 사이에 늘어난 일자리의 수를 합한 것이고, 일자리 소멸량은 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고용 규모가 축소된 사업체에서 t-1시점과 t시점 사 이에 일자리의 수를 합친 것이다. 순 일자리증가량은 일자리 창출량 t시점에서 일자리 소멸량을 뺀 값의 합이고, 일자리 재배치량은 모든 사업체에서의 일자 리 창출량과 일자리 소멸량을 합한 것이다. 초과일자리변동량이란 일자리 변동 량에서 순일자리 증가량의 절대값을 뺀 것이다. 최소 필요 일자리 이동량은 일 자리 창출량과 일자리 소멸량 중 큰 값을 가리킨다.

### 3. 일자리 변동의 연구 방법

#### 1) 일자리 변동의 측정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소멸이 동시에 발생한다. 지역 노동 시장에서 일자리 변동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면, 25개 일자리가 다음 해 30개 일자리로 증가하여 순일자리 5개가 관측되더라도 실제 내부에서 A부서 5개, B 부서 5개, C 부서 2개 등 총 12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D부서 2개, E부서 5개의 일자리가 감소하여 모두 7개가 소멸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럴 때 하나의 사업

1) 윤윤규·고영우(2009, 6)의 일자리변동 관련 주요 개념의 정의를 요약하여 재정 리하였음.

장에서 발생하는 일자리창출은 12개이고 소멸은 7개, 순일자리 증가는 5개, 일자리 변동은 19개, 초과일자리변동은 14개라고 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일자리 변동은 t-1년도 일자리 변동과 t년도 일자리를 비교할 때 단순히 변동량을 비교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t년도 일자리 변동량을 t-1년도 일자리수의 평균값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t년도 일자리 변동량을 t-1년도의 일자리수로 나누어 일반적인 증가율 방법과 비교하면, 신규 사업개시로 인하여 진입하는 사업장과 사업장 폐업으로 그만두는 사업장의 일자리 변동률이 무한대 값, 즉 무한대 음의 값이 아니라 +2, -2 값으로 나타난다.<sup>1)</sup>

## 2) 일자리창출율과 소멸률

일자리 변동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t기 부문 s에 속한 사업체 e의 일자리 수를  $EMP_{est}$  라고 하면 일자리 창출량 (JC)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sup>2)</sup>

$$JC_{est} = \Delta EMP_{est} \quad \text{if } \Delta EMP_{est} > 0 \quad (1)$$

$$EMP_{est} \cdot JD_{est} = |\Delta | \quad \text{if } \Delta EMP_{est} > 0 \quad (2)$$

여기서  $\Delta EMP_{est}$ 는  $EMP_{est} - EMP_{es(t-1)}$ , 다시 말하면 일자리 수에서 t기와 t-1기의 일자리 수의 차이를 설명한다.

사업장의 일자리 규모를 (JS)로 정의하면 사업체 규모 t기와 t-1기의 일자리 수의 평균값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JS_{est} = \frac{EMP_{est} + EMP_{ES(t-1)}}{2} \quad (3)$$

노동이동에 대한 일자리 변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일자리 변동은 일

1) 윤윤규·고영우(2009a) 『일자리 창출과 소멸에 관한 연구』 참조.

2) 김일태·김준영·정유석(2015) 참조.

자리창출률(JCR), 일자리소멸률 (JDR), 일자리규모 (JS)에 대한 일자리 창출률 (JC)과 일자리 소멸률(JD), 재배치율(JRR), 순증가(NET), 노동력변동 (WF), 초과노동이동(CR) 등으로 정의된다.

일자리 변동을 계산 시 일자리 창출 및 소멸량을 t-1기의 일자리수로 나누기 보다 t기와 t-1기의 일자리수의 평균값인  $JS_{est}$  로 나누어 주는 방법을 사용하고 일자리변동을 지표를 측정하면 일자리 창출률 (JCR), 일자리 소멸률 (JDR)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제시할 수 있다. 순일자리 증가율 (JNR)은 일자리창출률 (JCR)에서 일자리 소멸률(JDR)을 뺀 값으로 정의되며 다음(6)에 제시한 바와 같다.

$$JCR_{est} = \frac{JC_{est}}{JS_{est}} \tag{4}$$

$$JDR_{est} = \frac{JD_{est}}{JS_{est}} \tag{5}$$

$$JNR_{est} = JCR_{est} - JDR_{est} \tag{6}$$

### Ⅲ. 대전 · 충청권 일자리 변동과 실태

#### 1. 전국일자리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자리 변동 및 실태 분석자료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일자리 변동과 노동력 변동이 연계된 한국고용정보원 패널 형태의 DB(고용행정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과 소멸의 동태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고용보험 DB는 1995년 7월 이후 약 105만 개 사업체, 약 1,300만 근로자의 2,100만 개의 일자리(Job Spells)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방대한 자료이다. 그러나 특정 시점에서 포괄하는 근로자 수는 약 650만 명 정도로 전체 취업자 2,200만 명, 전체 근로자 1,300만 명의 일정 부분만 포괄하고 있다는

## 12 한국과 국제사회 제4권 5호 (2020)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DB는 한국에서 사업체와 근로자 연계 패널 자료를 제공하는 유일한 자료이고 일자리 변동의 동학(Dynamics)을 분석하는데 적합한 자료로 이를 통해 대전지역 일자리변동의 지역별 차이를 검토하였다.

다음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전국일자리 변동지표는 2018년 12월 기준 전국평균 일자리창출수는 6,315개, 소멸 7,053개이며, 채용 29,743개, 이직 30,587개이고 일자리의 순증가는 844개로 감소하였다. 일자리 순증가가 높은 순으로는 서울 2,133개, 경남 1,850개, 경기도 1,388개, 전남 1,346개 순이었고, 순증가가 낮은 지역은 강원도 -5,430개, 경북 -4,576개, 대구, -2,751개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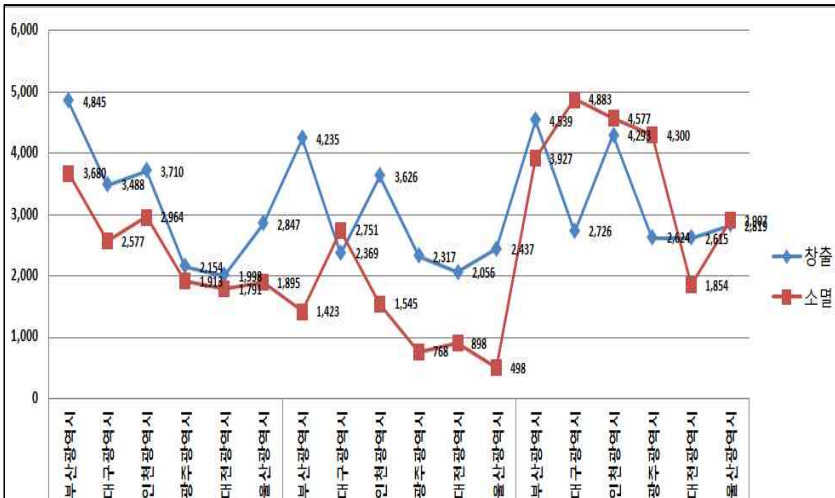
<표 1> 전국일자리 변동지표(2018년 12월 기준, 단위: 명, 개)

시도별	일자리 변동		노동력 변동		노동력 변동	순증가
	창출	소멸	채용	이직		
전국평균	6,315	7,053	29,743	30,587	60,330	- 844
합계	107,363	119,895	505,633	519,973	1,025,606	- 14,340
서울특별시	11,571	11,675	161,081	158,948	320,029	2,133
부산광역시	4,539	3,927	27,686	28,322	56,008	- 636
대구광역시	2,726	4,883	17,358	20,109	37,467	-2,751
인천광역시	4,293	4,577	23,500	24,396	47,896	- 896
광주광역시	2,624	4,300	12,632	12,635	25,267	- 3
대전광역시	2,615	1,854	12,315	12,727	25,042	- 412
울산광역시	2,819	2,907	10,077	9,684	19,761	393
세종특별자치시	715	311	2,464	2,786	5,250	- 322
경기도	21,293	30,234	109,521	108,133	217,654	1,388
강원도	5,816	8,470	11,827	17,277	29,104	- 5,450
충청북도	4,346	4,237	14,233	16,152	30,385	- 1,919
충청남도	7,687	7,124	17,394	19,415	36,809	- 2,021

전라북도	5,434	2,988	13,709	15,983	29,692	- 2,274
전라남도	9,430	11,137	17,380	16,034	33,414	1,346
경상북도	9,961	8,884	19,157	23,733	42,890	-4,576
경상남도	9,516	10,064	29,635	27,785	57,420	1,850
제주도	1,978	2,323	5,664	5,854	11,518	- 190

출처 : 2018년 12월 기준 고용보험 DB

전국 광역시 중 일자리 창출 및 소멸 추이는 다음 <그림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2016년~2018년까지 일자리 창출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지역으로 2016년 12월 4,845개였고 가장 낮은 지역은 2016년 대전지역으로 1,998개였다. 일자리 소멸이 낮은 지역은 2017년 광주 768개, 울산 498개였고, 높은 지역은 2018년 대구 4,883개, 인천 4,577개, 광주 4,300개 순으로 나타나 지역 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국 7개 도(都)지역 일자리 창출 및 소멸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12월 현재 일자리 창출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 9,961개, 경남 9,561개, 전남 9,430개 순이었고, 일자리 소멸이 낮은 지역은 제주도 2,323개, 전북 2,988개, 충북 4,237개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 광역시 일자리 변동추이(단위: 명, 개)

출처 : 2016년~2018년까지 고용보험 DB 일자리 창출

## 2. 지역 일자리(대전, 충남북, 세종)

대전, 충남북, 세종의 일자리 변동의 순증가 추이(2018년 기준)를 살펴보면, 세종시가 가장 많이 증가한 7,137개였고, 대전지역은 서구 5,503개, 유성구 4,995개, 충남도는 천안시 서북구가 4,496개, 천안 동남구 3,254개, 충북도는 청주시 흥덕구 3,246개, 청원구 2,615개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자리 변동 순증가의 전국평균 2,188개보다 높게 나타난 곳은 총 11개 지역으로 세종시, 대전 서구, 대전 유성구, 천안 서북구, 대전 동구, 대전 대덕구, 천안 동남구, 청주시 흥덕구, 대전 중구, 청주시 청원구, 충주시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대전, 충남북, 세종 일자리 변동현황 (2018.12월 기준, 단위: 명, 개)

시도별	일자리 변동		노동력 변동		노동력 변동	순증가
	창출	소멸	채용	이직		
전국평균	5,102	4,905	28,500	26,312	54,812	2,188
대전광역시 동구	3,591	3,194	27,955	24,207	52,162	3,748
대전광역시 중구	3,567	3,105	25,644	22,870	48,514	2,774
대전광역시 서구	6,901	5,808	57,067	51,564	108,631	5,503
대전광역시 유성구	9,333	7,705	49,281	44,286	93,567	4,995
대전광역시 대덕구	4,557	4,128	27,989	24,657	52,646	3,332
세종특별자치시	8,296	7,470	38,175	31,038	69,213	7,137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4,527	4,160	17,843	16,249	34,092	1,594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4,489	3,698	16,402	14,419	30,821	1,983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9,267	7,909	42,059	38,813	80,872	3,246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6,082	5,024	27,253	24,638	51,891	2,615
충청북도 충주시	6,854	6,713	23,087	20,777	43,864	2,310
충청북도 제천시	4,399	4,443	13,236	12,094	25,330	1,142
충청북도 보은군	2,865	2,587	4,048	3,810	7,858	238
충청북도 옥천군	2,422	1,928	7,008	6,494	13,502	514
충청북도 영동군	2,408	2,023	4,247	3,894	8,141	353
충청북도 증평군	1,427	1,172	3,826	3,646	7,472	180
충청북도 진천군	4,600	4,111	18,023	16,737	34,760	1,286
충청북도 괴산군	2,621	2,488	4,836	4,321	9,157	515
충청북도 음성군	5,184	5,136	22,956	22,099	45,055	857
충청북도 단양군	2,012	2,084	4,043	3,772	7,815	271
충청남도 천안시	0	135	8,708	9,517	18,225	-809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7,494	7,721	30,696	27,442	58,138	3,254
충청남도 천안시	9,884	9,336	52,292	47,796	100,088	4,496

16 한국과 국제사회 제4권 5호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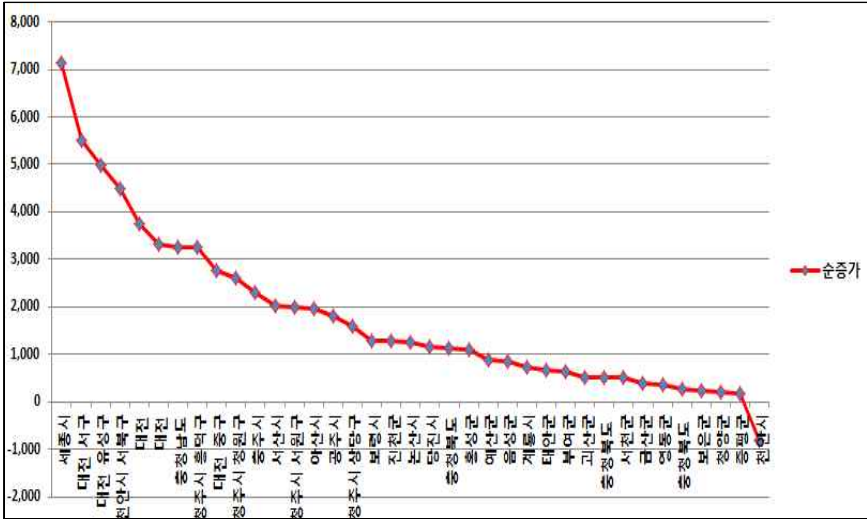
서북구						
충청남도 공주시	5,754	5,540	13,879	12,074	25,953	1,805
충청남도 보령시	5,401	5,567	11,132	9,843	20,975	1,289
충청남도 아산시	10,689	10,964	45,754	43,804	89,558	1,950
충청남도 서산시	7,739	8,261	18,606	16,592	35,198	2,014
충청남도 논산시	5,389	4,659	13,709	12,456	26,165	1,253
충청남도 계룡시	914	786	4,053	3,328	7,381	725
충청남도 당진시	8,881	9,286	21,115	19,960	41,075	1,155
충청남도 금산군	2,881	2,682	7,885	7,486	15,371	399
충청남도 부여군	3,879	3,951	6,667	6,020	12,687	647
충청남도 서천군	2,808	2,809	5,417	4,909	10,326	508
충청남도 청양군	2,865	2,984	3,820	3,629	7,449	191
충청남도 홍성군	5,158	4,989	9,840	8,747	18,587	1,093
충청남도 예산군	4,255	4,506	9,360	8,462	17,822	898
충청남도 태안군	4,821	4,659	6,005	5,325	11,330	680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EIS 통계

주) 2018년 1월~12월 통계수치임, 취득자는 재취득자수+신규취득자 포함

대전 충남북, 세종의 일자리 변동추이는 다음 <그림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가장 많은 일자리 수가 증가한 것은 세종시로 7,137개, 대전 서구 5,503개, 대전 유성구 4,995개, 천안 서북구 4,995개였으며, 낮은 증가는 충북 증평군 180개, 청양군 191개였다.

<그림 2> 대전·충남북·세종 순일자리 현황(단위: 개)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EIS 통계  
 주) 2018년 1월~12월 통계수치임

대전청 관할 중 순일자리가 비교적 높은 대전광역시 규모별 일자리 창출과 소멸은 다음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다. 일자리 순증가는 5인 미만 사업장 중 유성 1,560개, 서구 925개, 대덕 353개 순으로 나타났고, 규모별 일자리 중 가장 낮은 증가를 나타낸 지역은 10~29인으로 대덕구 -50개, 서구 -49개, 유성구 -22개 순으로 규모별로 일자리에 차이를 보였다. 지역에서 일자리 변동이 많은 유성구는 과학특구 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연구인력 유입이 많아 일자리 변동이 많았으며 세종시 인근 지역으로 건축, 건설업 종사자가 증가하여 일자리 수가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sup>3)</sup>

3) 대전지역 5개 구 중에서 일자리 창출이 가장 높으며 순증가율이 1,528명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

<표 3> 대전 규모별 일자리 창출과 소멸(단위: 명, 개)

구분	규모	창출	소멸	순증가
대전광역시 동구	합계	3,591	3,194	397
	1-4인	2,927	2,593	334
	5-9인	463	370	93
	10-29인	171	190	-19
	30-99인	27	39	-12
	100-299인	1	2	-1
	300-999인	2	0	2
	1000인 이상	0	0	0
대전광역시 중구	합계	3,567	3,105	462
	1-4인	2,914	2,562	352
	5-9인	471	350	121
	10-29인	156	152	4
	30-99인	21	32	-11
	100-299인	5	8	-3
	300-999인	0	1	-1
	1000인 이상	0	0	0
대전광역시 서구	합계	6,901	5,808	1,093
	1-4인	5,495	4,570	925
	5-9인	1,058	822	236
	10-29인	288	337	-49
	30-99인	52	63	-11
	100-299인	4	11	-7
	300-999인	3	5	-2
	1000인 이상	1	0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합계	9,333	7,705	1,628
	1-4인	8,104	6,544	1,560
	5-9인	744	635	109
	10-29인	392	414	-22
	30-99인	82	89	-7
	100-299인	8	17	-9
	300-999인	2	6	-4
	1000인 이상	1	0	1
대전광역시 대덕구	합계	4,557	4,128	429
	1-4인	3,802	3,449	353
	5-9인	558	417	141
	10-29인	164	214	-50

	30-99인	27	36	-9
	100-299인	4	10	-6
	300-999인	2	2	0
	1000인 이상	0	0	0

주) 2018년 1월~12월 통계수치임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EIS 통계

규모별 일자리 채용·이직 현황은 다음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으며 일자리 변동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대전지역 일자리 순증가의 평균은 370개로 이들 중 순증가율이 높은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는 유성구 3,041개, 서구 2,649개였으며, 낮은 규모는 500인-999인으로 서구 -675개, 300인-499인으로 유성구가 -533개로 나타났다.

<표 4> 대전광역시 규모별 일자리 채용·이직 특징(단위: 명, 개)

구분	규모별	채용	이직	순증가
대전광역시 동구	합계	27,955	24,207	3,748
	5인 미만	5,308	4,339	969
	5인 - 9인	3,297	2,770	527
	10인 - 29인	4,093	3,786	307
	30인 - 49인	1,781	1,758	23
	50인 - 69인	1,389	1,028	361
	70인 - 99인	1,282	1,341	-59
	100인 - 149인	773	614	159
	150인 - 299인	547	608	-61
	300인 - 499인	779	791	-12
	500인 - 999인	4,577	2,643	1,934
1000 이상	4,129	4,529	-400	
대전광역시 중구	합계	25,644	22,870	2,774
	5인 미만	6,593	4,962	1,631
	5인 - 9인	3,738	3,262	476
	10인 - 29인	4,832	4,493	339
	30인 - 49인	2,339	2,490	-151
	50인 - 69인	1,089	1,161	-72
	70인 - 99인	1,277	1,148	129
	100인 - 149인	510	635	-125

	150인 - 299인	1,875	1,579	296	
	300인 - 499인	750	720	30	
	500인 - 999인	1,432	1,187	245	
	1000 이상	1,209	1,233	-24	
	합계	57,067	51,564	5,503	
대전광역시 서구	5인 미만	12,762	10,113	2,649	
	5인 - 9인	8,218	7,001	1,217	
	10인 - 29인	10,163	8,922	1,241	
	30인 - 49인	3,074	3,057	17	
	50인 - 69인	2,391	2,218	173	
	70인 - 99인	1,317	1,436	-119	
	100인 - 149인	1,465	1,298	167	
	150인 - 299인	6,031	4,722	1,309	
	300인 - 499인	2,188	2,255	-67	
	500인 - 999인	1,114	1,789	-675	
	1000이상	8,344	8,753	-409	
	합계	49,281	44,286	4,995	
	대전광역시 유성구	5인 미만	12,642	9,601	3,041
		5인 - 9인	7,054	6,102	952
10인 - 29인		8,484	8,029	455	
30인 - 49인		3,127	2,966	161	
50인 - 69인		1,815	1,720	95	
70인 - 99인		1,656	1,395	261	
100인 - 149인		2,724	2,464	260	
150인 - 299인		4,441	4,130	311	
300인 - 499인		1,853	2,386	-533	
500인 - 999인		3,686	3,628	58	
1000 이상		1,799	1,865	-66	
	합계	27,989	24,657	3,332	
대전광역시 대덕구	5인 미만	5,780	4,710	1,070	
	5인 - 9인	4,044	3,420	624	
	10인 - 29인	4,436	4,609	-173	
	30인 - 49인	1,634	1,732	-98	
	50인 - 69인	1,060	1,096	-36	
	70인 - 99인	1,322	1,312	10	
	100인 - 149인	986	1,101	-115	
	150인 - 299인	2,010	1,897	113	
	300인 - 499인	884	663	221	
	500인 - 999인	2,904	1,838	1,066	

	1000 이상	2,929	2,279	650
--	---------	-------	-------	-----

주) 2018년 1월~12월 통계수치임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EIS 통계

대전지역 일자리의 특징 중 채용기준 근속연수의 이직 현황은 다음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다. 채용기준 근속연수 1년 미만의 상실자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대전 서구의 경우 1년 미만에서 32,248개, 유성구가 1년 미만이 25,323개, 대덕구가 1년 미만 14,723개, 동구가 1년 미만 14,276개, 중구가 1년 미만 13,934개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대전지역 채용기준 근속연수의 이직 현황(단위: 명, 개)

구분	채용기준 근속연수	이직
대전광역시 동구	합계	24,207
	1년 미만	14,276
	1년 - 3년	5,228
	3년 - 5년	1,479
	5년 - 10년	1,414
	10년 - 15년	1,200
	15년 - 20년	276
	20년 - 25년	190
	25년 - 30년	40
	30년 이상	104
	해당 없음	0
대전광역시 중구	합계	22,870
	1년 미만	13,934
	1년 - 3년	6,110
	3년 - 5년	1,510
	5년 - 10년	897
	10년 - 15년	221
	15년 - 20년	109
	20년 - 25년	51
	25년 - 30년	29
	30년 이상	9
	해당 없음	0
대전광역시 서구	합계	51,564
	1년 미만	32,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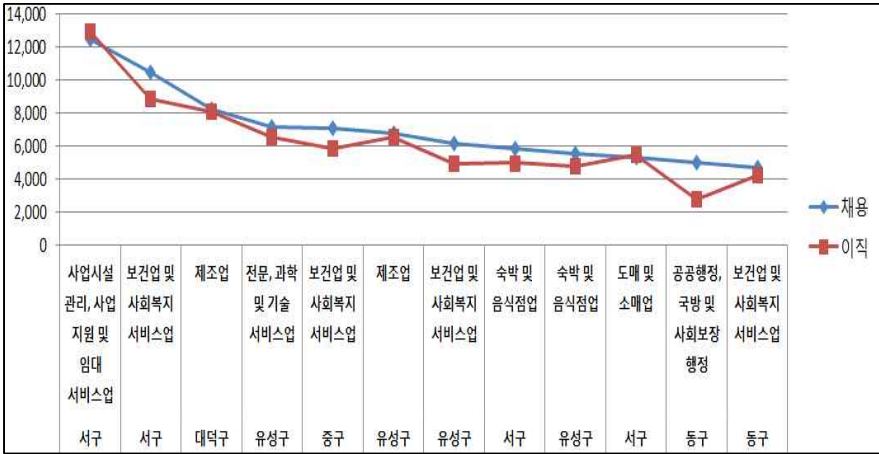
	1년 - 3년	12,851
	3년 - 5년	3,096
	5년 - 10년	2,321
	10년 - 15년	540
	15년 - 20년	347
	20년 - 25년	98
	25년 - 30년	30
	30년 이상	38
	해당 없음	0
	합계	44,286
대전광역시 유성구	1년 미만	25,323
	1년 - 3년	12,589
	3년 - 5년	3,161
	5년 - 10년	2,150
	10년 - 15년	530
	15년 - 20년	184
	20년 - 25년	56
	25년 - 30년	70
	30년 이상	223
	해당 없음	0
	합계	24,657
대전광역시 대덕구	1년 미만	14,723
	1년 - 3년	5,915
	3년 - 5년	1,631
	5년 - 10년	1,359
	10년 - 15년	376
	15년 - 20년	253
	20년 - 25년	118
	25년 - 30년	89
	30년 이상	193
	해당 없음	0

주) 2018년 1월~12월 통계수치임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EIS 통계

대전지역 산업대분류별 채용·이직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 3>에 제시한 바와 같다. 일자리 변동의 주요 특징으로는 채용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구지역이었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이

12,922개, 서구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0,484개, 대덕구 ‘제조업’ 8,252개 순이었고, 이직이 가장 높은 산업은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이 12,922개, 서구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8,836개, 대덕구 ‘제조업’이 8,103개였다.



<그림 3> 대전지역 산업대분류별 채용·이직 현황(단위: 명, 건)

#### IV. 대전·충남북·세종 일자리 상관성 분석

다음은 대전 관할권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일자리 변동과 노동이동의 지역 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일자리 창출의 지역적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지역의 경제성장률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순 일자리 증가가 아니라 근로자의 노동이동 등 지역적 재화의 차이와 같은 산업구조의 차이가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지역 일자리 변동지표에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지역별 생산증가율, 산업구조, 인구구조변화 등 변수를 통해 회귀분석으로 추정해야 하나 이러한 인과관계분석을 위한 변수들이 지역 단위에서 통계가 정확하지 않아 본 논문에서는 상관관계 및 일자리 재배치, 노동력 변동, 초과노동이동, 일자리 순증가 추이 등을 분석하였다.

1. 지역 일자리 상관관계

대전 관할권 지역 일자리 변동 및 노동이동 관련 변수<sup>4)</sup>는 NET(순일자리 증가율), JRR(재배치율), WF(노동력변동), CR(초과노동이동) 정의하여 상관관계는 다음 <표 6>에 제시하는 바와 같다. 순일자리 증가와 노동력 변동과는 상관성이 높아 채용이 많을수록 순일자리는 증가하고, 초과노동이동은 노동력 변동이 많을수록 초과이동이 많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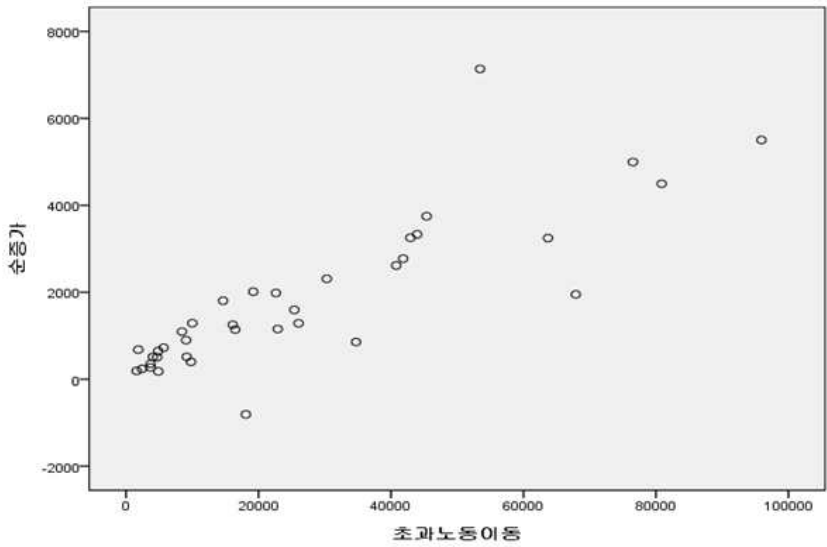
<표 6> 상관계수

	JRR (재배치율)	WF(노동력이동)	NET (순일자리 증가율)
WF(노동력변동)	.772**		
NET(순일자리 증가율)	.636**	.847**	
CR(초과노동이동)	.683**	.991**	.843**

주) \*는 1% 수준, \*\* 5% 수준에서 유의함.

다음 <그림 4>에 제시한 산점도는 순증가와 초과노동이동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순증가가 증가할 때 초과노동이동도 함께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즉 일자리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채용이 증가하면 초과노동이 증가하고 있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등 산업재해의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4) 순일자리 증가율 =NET, 재배치율(JRR), 노동력변동=WF, 초과노동이동=C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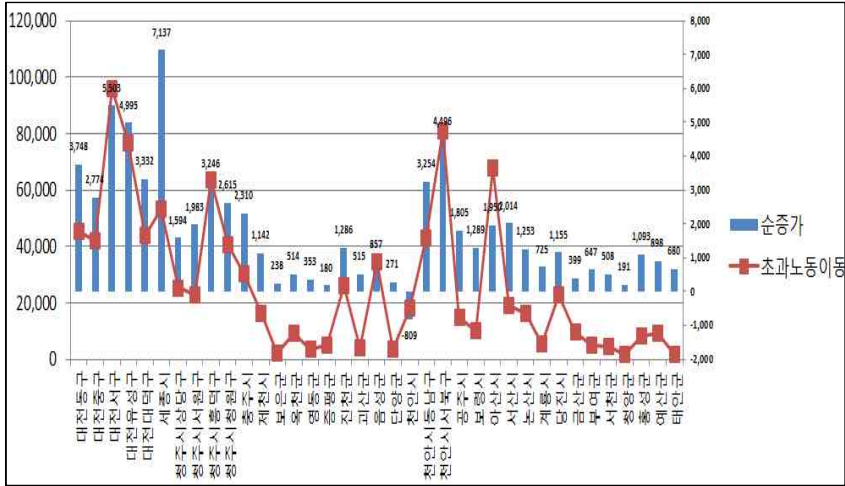


<그림 4> 산점도

## 2. 초과노동이동과 순증가 비교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특수한 상황으로 일자리 변동 변수가 크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 초과노동이동량과 순증가 추이를 살펴본 결과 다음 <그림 5>에 제시한 바와 같다. 초과노동이동량이 많은 대전 서구, 청주시 흥덕구, 천안시 서북구, 아산시 등 지역에서 순증가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대비 비중으로 보았을 때 대전 서구를 제외한 일자리증가율은 낮은 수준으로 과도한 초과노동이동량으로 일자리 순증가가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치는 대체 채용과 대체 이직에 따른 비용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이러한 초과노동이동량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고민하고 지역 차원의 해결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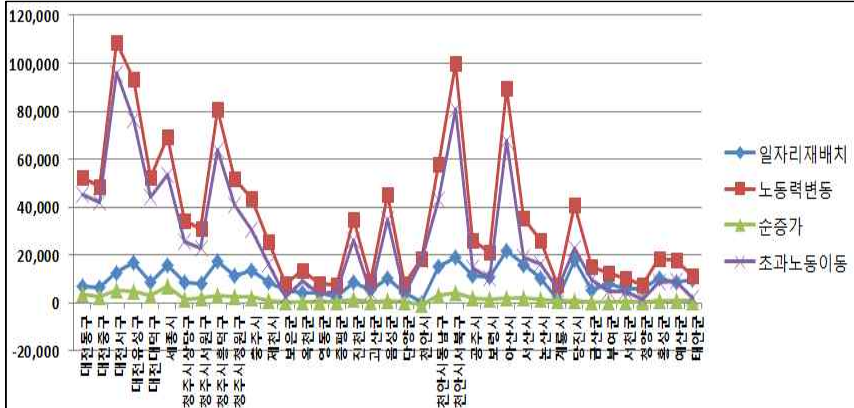
<그림 5> 대전 관할권 지역 순증가 및 초과노동이동 비중(2018, 단위: 건, 명)



### 3. 노동력 변동과 순증가 비교

대전청 관할 지역 일자리 재배치, 노동력 변동, 순증가, 초과노동이동 현황은 다음 <그림 6>에 제시한 바와 같다. 노동력 변동이 많은 대전 서구, 천안시 서북구, 대전 유성구, 아산시, 청주시 흥덕구 순으로 일자리 순증가와 초과노동이동이 높게 나타났다. 즉 인구변화 등 지역 일자리가 증가한 지역에서 채용과 이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고 충북 증평군, 충남 청양군, 계룡시는 노동력 변동이 적어 채용과 이직이 적게 나타나, 향후 이 지역에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6> 대전 관할권 지역 일자리 재배치, 노동력 변동, 순증가, 초과노동이동의 현황(단위: 건, 명)



## V. 결론 및 시사점

최근 국내 노동시장의 고용상황은 경기침체, 성장잠재력 저하, 노동관계법 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일자리 창출이 저하되고 있고 일자리 소멸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본 논문은 지역 일자리 변동을 분석하여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 변수 간 상관성 분석에서 순일자리 증가와 노동력 변동과는 상관성이 높아 채용이 많을수록 순일자리는 증가하고, 초과노동이동은 노동력 변동이 클수록 초과이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역 일자리 초과노동이동량과 순증가 추이를 살펴본 결과, 초과노동이동량이 많은 대전 서구, 청주시 흥덕구, 천안시 서북구, 아산시 등 지역에서 순증가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고용보험 피보험자 대비 비중으로 보았을 때 대전 서구를 제외한 일자리 증가율은 낮은 수준으로 과도한 초과노동이동량에 의한 일자리 순증가가 나타났다. 이는 근로자의 노동력 초과에 따른 산업 안전문제 발생,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으로 지역 고

용정책 수립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 결과는 대체채용과 대체 이직에 따른 비용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을 주고 있으며 지역 차원의 고용정책 수립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노동력 변동이 많은 지역은 대전 서구, 천안시 서북구, 대전 유성구, 아산시, 청주시 흥덕구 순으로 일자리 순증가와 초과노동이동이 높게 나타났다. 즉 이들 지역은 인구변화 등 지역 일자리가 증가한 지역에서 채용과 이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충북 증평군, 충남 청양군, 계룡시는 노동력 변동이 적어 채용과 이직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에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발굴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대전 관할권 지역은 대전 대덕 특구 연구단지 연구 분야의 서브 역할을 담당하는 관련 기관증가와 세종시 인근 유성구 건축, 건설업 증가로 최근 몇 년간 많은 인력이 증가하였으며, 천안지역에서 인구증가가 일자리 순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일자리 증가가 낮은 충남 지역군, 충북지역 군의 경우 지역발전 여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조업 등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차세대 지역 성장잠재력이 있는 산업을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는 지역 일자리 변동요인 분석에서 지역별 생산증가율, 산업구조 변화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한 회귀분석 등 인과관계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제시해야 하나 지역 단위 통계자료의 부족으로 분석자료의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료의 한계를 보완하는 연구들이 많이 등장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2009. 『기업별 일자리창출 소멸연구』.
- 고영우. 2016. 『지역별 일자리 창출·소멸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권우현·노현국·안성익·전인. 2013. 『대구·경북지역 노동시장 분석』 한국고용정보원.
- 김대일. 2000. “경제위기 이후의 고용창출 유형 분석.” 유경준 편저. 『고용창출에 관한 연구』 비봉출판사, 83-122.
- 김준영. 2013. “부산지역 구군별 일자리창출과 소멸의 구조와 특징: 고용보험 DB를 이용한 분석.” 『산업혁신연구』 제29권 3호, 43-67.
- 김일태·김준영·정유석. 2015. “고용보험자료를 이용한 일자리변동 분석.” 『한국지역경제학회지』 제13권, 61-86.
- 김혜원. 2004. “1981~2000년간 한국 광공업 5인 이상 사업체에서의 일자리창출과 소멸.” 『노동경제논집』 제27권 2호, 29-66.
- 문남철. 2009. “일자리창출과 소멸의 지역 간 격차에 관한 연구.” 『국토지리학회지』 제43권 3호, 423-433.
- 윤윤규·고영우. 2009. “일자리 창출과 소멸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제13권 제155호.
- 전병유. 2003. “지역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변동과 노동이동.” 『한국노동연구원』, 327-368.
- 정인수. 2006. “부천 제조업 일자리 창출 및 소멸의 선진국 비교 분석과 정책 시사점.” 『국제경제연구』 제12권 2호, 129-162.
- Blanchard, Jean Oliver., and Lawrence F. Katz. 1992. “Regional Evolution”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Vol.1,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e, 1-75.
- Davis, Steven J. and John Haltiwanger. 1999. “Gross Job Flow,” in O. Ashenfelter and D. Card(eds.), Handbook of Labor Economics, Volume 3b(Elsevier).
- 한국통계청: <http://kostat.go.kr>
- 한국고용정보원: <https://eis.work.go.kr>

투고일 : 2020년 8월 25일 . 심사일 : 2020년 9월 20일 . 게재확정일 : 2020년 10월 3일

\* 김형근은 현재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대표논문으로는 “임금경절요인 및 성별 임금격차 분석 -지역고용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경제연구』 “대전 지역 경력단절여성의 취업특성 분석.” 등이 있다.

\* 임영언은 일본 조치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사회적경제 전공)를 취득했으며, 현재 한남대학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韓國人企業家: ニューカマーの起業過程とエスニック資源』, 『재일코리안 기업의 경영활동』, 『글로벌 디아스포라와 세계의 한민족』, 『재일코리안 기업의 형성과 기업가정신』 등이 있다.

\* 김일태는 미국 조지아대학교 경제학박사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표실적으로는 “지방정부 부채와 지역경제성장 연구,” 『한국지역경제연구』, “Conjecture between Two Cournot Firms with Symmetric Information and Their Risk-taking Behaviors,” 등이 있다.

<Abstract>

**A Study on Local Employment Policy by Job Change and Labor Movement in the Labor Market : Focusing on the Daejeon and Chungcheong areas**

Kim, Hyeong-Geun  
(Daejeon Regional Employment and Labor)  
Yim, Young-Eon  
(Hannam University)  
Kim, Ilta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nalyzes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job creation and extinction in the whole country and region using panel-type data associated with job change and labor force change, and provides implications for local employment policy. In December 2018, the number of job creation, extinction, recruitment, and change in job in the region was 6,315, 7,053, 29,743, and 30,587 respectively and the net increase of jobs was -844. The areas and numbers with high job creation in the metropolitan cities were Gyeongbuk(9,961), Gyeongnam(9,961) and Jeonnam(9,430) and the areas and numbers with low job extinction were Jeju Island(2,323), Jeonbuk(2,988) and Chungbuk(4,237). The paper shows that in the analysis of job changes in Daejeon government offices, first, in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job variables, whe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increase in net jobs and the change in labor force is high, the more jobs are hired, the more net jobs increase, and the more changes in labor force are high, the more excess labor changes are high. Second, this paper reveals that the net increase of over-work in local is very high in Daejeon, Seo-gu, Cheongju, Heungduk-gu, Cheonan, and Asan-si, where the amount of over-work is high. It confirms that the net increase of jobs due to the over excess labor

## 32 한국과 국제사회 제4권 5호 (2020)

change is due to the excess labor change, suggesting that problems such as industrial safety due to excessive labor force of workers and the balance of work family of workers should be checked. Finally, this paper shows that in Jeongpyeong-gun, Chungcheong-do, Cheongyang-gun, and Gyeryong-si of Chungbuk, low employment and turnover is small due to low labor changes, and implies that local job creation policy is required.

**Keywords** : Job Change, Net Job, the Amount of Excess Labor Change, Change in Labor Force, Job Creation